

NEWS

벤·처·관·련

정보통신부, '기술예측 2020' 발표

정통부는 지난 1년 동안 IT 전문가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IT에 대한 조사(웹 기반 델파이 방식)'를 벌여 1차로 '365개

기술요구(Needs)'를 추려낸 뒤 다시 '52개 핵심 기술요구'로 압축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 예측에서 한국은 52개 핵심 기술요구 중 12개 부문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마이크로 로봇기술 등 36개 분야에서 가장 앞섰고, 일본은 나노구조 전극제작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네트워크 분야 기술 수준이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85.1%로 높지만 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융합 분야는 61.7%로 낮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벤처 창업분위기 조성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지난 달 5일 공고하고 4월 13일까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venture.kait.or.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번 대회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일반패키지 S/W, 기기·부품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이내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상 및 상금과 함께 국내외 IT 시장 견학의 기회도 준다.

이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창업예비교육, 창업 집중교육, 사업화 실무교육, 특허출원지원, 해외시장 견학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우수 수상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평가도 지원함으로써 수상자들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중소서비스지원팀', '사업전환팀' 신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분야 서비스업체들을 돕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에 전담 지원하는 '중소서비스지원팀'과 한계기업이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2월 말 '2007년 업무보고'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사업전환·인수합병(M&A) 촉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중소서비스지원팀'은 올해 지식서비스 육성자금(1천억 원), e-쿠폰제 컨설팅 사업(200억 원),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200억 원) 등으로 서비스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나선다.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방안'을 통해 국내 컨설팅업과 협업사업(ICMS)의 육성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사업은 연구개발(R&D), 제조, 판매 등 전문영역의 개별 중소기업들이 수평적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업전환팀'은 지난 해보다 2배가 늘어난 1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M&A 및 사업전환을 돕게 된다.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을 극복과 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총괄·지원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취지에 부합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를 접수한다.

중진공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거점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중동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기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돕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면 해외 현지 마케팅 고문, 법률·회계 고문을 활용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현지 수출거점으로 쓸 수 있는 사무공간(3~4평 크기) 및 공동시설(회의·상담실)과 사무용 집기, 전화·인터넷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지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 물류지원 서비스와 중소기업 단기 출장 직원의 비즈니스 편의 제공은 물론 입주 기업간 경험과 노하우 공유와 진출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절차는 우선 입주 희망 중소기업이 자사의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해 입주 희망지역(10개국 15개소)을 선정한 다음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타당성 평가와 입주결정은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주를 결정한다. 한편 중진공의 수출인큐베iting 실적은 지난 해 12월 현재 9억 3300만 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 개성공단 진출지원 순회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진출지원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4월 약 52만 평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의 제도와 진출전략, 개성공단 분양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통일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동으로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행자부, 新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며 전국 3,000여 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지난 해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제도 확산이 이뤄지도록 지난 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일선구매 담당자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중기청은 "이번 교육은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과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지방 및 정부구매제도, 공공구매 참여방법 등 계약관련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상담과 함께 실시해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배경은 지난 해 정부의 '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해부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별 지원제도 설명회, 제도 확산과정 및 제도활용 업체전문가과정 등 8,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벤처·기술혁신형중소기업 프리포드 설명회

수도권 벤처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들을 대상으로 프리포드 지정 설명회가 개최된다.

증권업협회는 3월 21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4월 5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프리포드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리포드 시장제도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1분기 '2007디지털콘텐츠대상' 모집

정보통신부가 1분기 '2007디지털콘텐츠대상' 응모작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디지털영상, 온라인게임, 교육용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웹정보콘텐츠, DC유통서비스모델, 차세대콘텐츠 등 총 7개 분야이며 시장은 각 분야별로 1개 작품이 선정된다.

출품대상은 개발 완료된 아이템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직전의 아이템도 출품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각 분야별 국내시장 내 제품경쟁력, 해외 경쟁력, 기술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등이다.

모집기간은 4월 15~29일이며 참가신청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응모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수상작 선정결과는 5월 9일 이후 개별통보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수상업체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인천시, '2007년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하여 인천경제를 선도할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금, 판로지원 등 시책사업을 우선지원 하기로 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은 인천광역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가동중인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타 기관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졸업한 업체를 제외한 첨단기술보유업체, 벤처기업, 제조업 관련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할 방침이다. 각 군·구 및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15개 추천기관에서 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평가를 하여 추천된 업체 중에서 2차로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1차·2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3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대지원하고, 기술지도 및 해외인증획득 우선지원, 판로지원(국내·외전시회 참가),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대구시, 2007년도 스타기업 Project 본격 가동

대구시는 대구벤처센터에서 2007년 스타기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1차년도분) 스타기업 24개 업체를 선정했다.

대구시에서는 선정된 스타기업에 대하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기회제공, 시 정책자금 저리 융자혜택, 산업단지 분양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지방국세청), 해외 마케팅사업(수출보험공사 및 KOTRA) 우선 참여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ETRI-대구대, '지역 유비쿼터스 및 IT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최문기) 및 대구대학교(총장 이용두)와 '지역 유비쿼터스 및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IT 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IT 관련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와 ETRI, 대구대학교는 경북에 대한 지식기반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획기적인 지역산업 부흥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경북'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학연 협력 구축을 목표로 공동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TRI는 앞으로 '유비쿼터스 및 IT관련 연구기관' 간 전문연구 인력의 상호방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경북지역 유비쿼터스 산업 육성 거점연구소인 대구대학교의 '유비쿼터스 신기술연구센터(UTRC)'와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 I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라대 '마린바이오센터' 배송자 교수 산자부장관상 수상

부산 신라대학교 '마린 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라대에 따르면 이날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주최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동 주관 '2007 바이오산업 지역혁신 세미나'에서 신라대 '마린 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배송자(60) 센터장이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신라대가 산업자원부와 부산시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2년 7월 신라대에 '마린 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해 마린바이오 기능성 물질 연구 개발 및 산업화와 식의 약자가 품질검사센터 운영, 저 이용 물질을 활용한 DHA & EPA 생산 및 콜라젠 및 젤라틴소재 개발, 단백 식품 소재개발 사업, 바이오생산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수행,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15개 관련 센터들이 참여해 전국해양바이오협의회 결성 지난 해 4월부터 현재까지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며 센터간 네트워크 구축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공유와 성과 활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부울중기청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유중)은 2007년 1분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로 김은봉 한국시엠알 대표, 한진국 고성ENG 대표, 김성태 모텍 대표 등 3명을 선정해 3월 21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광주과기원, 세계 첫 단분자막 전기특성 구명

초저능·초소형 손목컴퓨터나 로봇 연구에 필수적인 단분자막 내 전자 흐름의 특성이 세계 처음으로 구명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원장 허성관) 신소재공학과 이탁희 교수(39)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능성분자메모리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 이효영 박사와 공동으로 최근 하나의 분자 층으로 구성된 단분자막 내의 전자 흐름의 특성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미국 화학회지 커뮤니케이션에 '알킬 분자전자 소자에서의 분자 간 전하터널링 현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실렸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도성 원자힘 현미경을 이용해 알킬계 자기조립 단분자의 배열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하의 수송현상과 전달 경로를 구명했다.

그동안 단분자막에서 어떤 경로로 전하가 전달되는지 구명되지 않았으나 이 교수팀은 분자를 따라 전하가 수송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으며 특히 분자의 배열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전하수송 경로가 있다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

국산RFID 리더기술, 국제표준 인증

미국이나 일본등 기술 선진국들에 뒤져있던 국산 전자태그(RFID) 리더 기술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외산제품들이 점령했던 국내시장을 국산 제품들이 대체할 수 있고 해외시장도 공략할 수 있게 돼 관련업체의 판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문기)는 사라콤, 빅텍, 온유에스엔, 하이트랙스, 아시아나 IDT 등과 공동 개발한 RFID 수동형 리더가 국제 표준규격단체인 'EPC 글로벌'의 RFID 하드웨어에 정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PC 글로벌'은 비영리 기관으로 2003년부터 RFID 관련 기술, 비즈니스 및 정책에 대한 제반 연구 및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수동형 RFID는 별도의 전지(배터리)를 갖고 있지 않아 칩이 자신의 동작 전력을 얻기위해 리더로부터 송출되는 전자파를 자신의 전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국제인증 받은 수동형 RFID 리더는 앞으로 대형물류센터, 쇼핑센터, 컨베이어응용, 우편집중국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인증받은 국제표준 규격은 UHF대역의 국제 단일 규격으로 표준을 따르는 어떤 태그도 읽을 수 있어 세계 시장진출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제표준 인증은 국산 리더기의 기술적 수준이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리더 기술은 인식거리가 최대 8M에 이르는 900MHz대역이며 특히 최근 RFID의 보급 확대로 리더기가 많이 모여 있는 밀집 리더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향후 전개될 시장에서 미국을 포함 국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은 세계를 무대로 시장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ETRI는 내다봤다.

KAIST 최양규 교수팀, 8nm급 플래시 메모리 개발 성공

엄지 손톱 크기의 메모리 칩에 1천편 이상의 DVD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소형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소자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최양규 교수팀과 나노종합팹센터(소장 이희철)는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8nm급(나노미터: 10억 분의 1m) 3차원 차세대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nm는 이 소자에서 전자의 이동을 조절하는 게이트의 선폴을 말하는 것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만 2천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선폴기술을 이용하면 머리카락 한 올에 12폭의 동양화를 그려 넣을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8nm급 메모리 소자는 테라비트(1조비트)급 메모리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명연, 한동대학교와 협정 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동대학교는 생명공학 첨단 연구 및 교육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학·연간 공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키로 하고, 지난 달 20일(화) 한동대학교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 및 학술정보 교류,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와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나노 R&D 추진을 위한 4개 기관간 협정 체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은 '바이오 나노 R&D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협정 체결에 따라 생명연, 강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은 바이오 나노 분야에서 특화된 사업분야를 공동으로 기획·추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나노기술은 다른 융합기술 분야와 더불어 향후 세계 경제의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NEWS

대·덕·R&D·특·구

IITA, 새로운 CI 선포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CI(기업이미지통합)를 새롭게 바꾸고 2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대강당에서 새로운 CI 선포식을 가졌다.

진흥원은 새롭게 바뀐 CI에 대해 IITA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또 이번 CI 개편과 함께 영문명칭을 IIT-Assessment(평가)에서 IIT-Advancement(진흥)로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IITA는 CI 개편을 계기로 "앞장서서 개척하고 선도한다"는 의미로 FORWARD IITA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만들어 이날 함께 선포했다.

NEWS

여·성·벤·처

여성경제인 권익증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력

한국여성벤처협회사무총장 최문경씨 최문경(44) 전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강원지회 사무국장이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32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업체를 주축으로 출범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과 도소매 서비스업종 회원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기업인으로 회원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여성경제인들의 권익증진과 연대강화에 주력하며 여성경제단체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

최 총장은 국내 유명 헤드헌팅회사인 로지컴 코리아(주)의 첫 여성등재 이사로 발탁돼 여성 1호 상무라는 타이틀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기업의 최고경영자 임원 기술자 등 고급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해주는 일을 해왔다.

최 총장은 "강원도에서 일했던 현장경험과 경제인단체에서 익힌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인맥을 토대로 여성벤처인들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